

『般若波羅蜜多心經』의 瓦版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Prajna Paramita Sutra* Printed with Tile Block Plates

朴文烈 (Park, Moon-Year)*

◁ 목 차 ▷

- | | |
|-------------------|--------------------|
| 1. 緒言 | 4.1 「般若波羅蜜多心經」의 漢譯 |
| 2. 印刷術의 概念과 種類 | 4.2 「般若波羅蜜多心經」의 構成 |
| 2.1 印刷術의 概念 | 5. 「般若波羅蜜多心經」의 瓦版 |
| 2.2 印刷術의 種類 | 5.1 瓦版의 形態 |
| 3. 瓦版과 瓦版印刷術 | 5.2 木版本과의 比較 |
| 3.1 瓦版의 概念과 製作法 | 5.3 瓦版의 價値 |
| 3.2 瓦版印刷術 | 6. 結 論 |
| 3.3 瓦版印刷術 關聯 記錄 | <참고문헌> |
| 4. 「般若波羅蜜多心經」의 概觀 | |

< 초 목 >

본 研究는 『般若波羅蜜多心經』 瓦版에 관하여 考察한 것으로 그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1) 印刷術은 版印刷術이 活字印刷術보다 先行되었으나, 各國마다 劃一的으로 各種의 版印刷術이 活字印刷術보다 先行하여 發展한 것만도 결코 아니다.
- (2) 瓦版은 瓦土·粘土·瓷土·膠泥 등의 各種 土壤으로 版型을 만들어 그 위에 文字나 그림 등을 反對로 彫刻하여 기와나 벽돌처럼 구워낸 印出用 册版을 의미하는 것이다.
- (3) 韓國의 瓦版印刷術에 관한 根據資料는 매우 不足하며, 혹은 韓國에서는 瓦版印刷術의 普及自體가 必要하지 않았던 事案이 아닌가 한다.
- (4) 본 研究對象의 瓦版은 唐朝의 玄奘이 漢譯한 『般若波羅蜜多心經』의 瓦版으로 製作地·製作處(者)·製作年度 등이 不明하다.
- (5) 『般若波羅蜜多心經』 瓦版은 日帝强占期에 韓國에서 日人에 의하여 製作되었거나 혹은 日本이나 中國에서 製作되어 國內로 流入되었을 可能性도 없지 않으며, 學術的·文化財의 側面에서 그 價値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評價된다.

要語: 版印刷術, 瓦版, 瓦版印刷術, 『般若波羅蜜多心經』

* 淸州大學校 人文大學 人文學部 文獻情報學專攻 教授(parkmoon@cju.ac.kr)

접수일: 2011년 11월 28일 최초심사일: 2011년 11월 28일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23일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on the *Prajna Paramita Sutra* printed with tile block plat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Usually, it is known that the block printing precedes the type printing, but not every country has the same process.
- (2) Tile block plates are the boards for printing books. They are made of soils like powdered tiles, clays, china clays, and mortars. After plates are made, letters and pictures are carved on their surfaces in the reverse direction of the letters' own shapes, and then those carved plates are baked as tiles or bricks.
- (3) In Korea, the information about the technique of printing with tile block plates is sparse. It is assumed that there was no need to spread tile block printing at that time.
- (4) In this study, analyzed are the tile block plates of *Prajna Paramita Sutra* translated by Hyunjang in the Tang Dynasty. The place and date of making this tile block plate and its maker are unidentified.
- (5) The tile block plate of *Prajna Paramita Sutra* was possibly made by a Japanese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or brought into Korea from Japan or China. So far, the tile block plate of *Prajna Paramita Sutra* seems to have no great academic and cultural values.

Key words: Block Printing, Tile Block Plate, Tile Block printing, *Prajna Paramita Sutra*

1. 緒言

印刷術이 發明되기 전에 人類는 筆寫로 知識情報을 傳達하고 傳播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筆寫本은 筆寫過程에서 誤字와 脫字 등 本文의 內容을 變化시키는 階段이 없지 않아, 知識과 文化의 水準이 점차 발달하고 올바른 本文의 需要가 增加되면서 필연적으로 印刷術이 發明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最近 筆者는 「般若波羅蜜多心經」의 瓦版¹⁾을 窺見할 수 있는 機會가 있었다. 所藏者로부터 瓦版²⁾의 寫眞과 印出本을 郵便으로 전해 받고 檢討한 후, 實物에 立脚한 眞僞判斷을 위하여 所藏者의 居住地인 慶尙北道 奉化郡의 春陽面 小魯里로 訪問하여 문제의 瓦版을 目見할 수 있었다.

本稿는 瓦版의 概念과 製作法 및 瓦版印刷術을 중심으로 「般若波羅蜜多心經」 瓦版의 形態와 瓦版本의 特徵 등을 考察함으로써 「般若波羅蜜多心經」 瓦版의 學術的·文化財的 價値를 考究하고자 한다.

2. 印刷術의 概念과 種類

2.1 印刷術의 概念

書籍은 人間의 精神的인 思考를 文字나 記號 등을 사용하여 一定한 形式의

1) 「般若波羅蜜多心經」 瓦版의 所藏者는 慶尙北道 奉化郡 奉化邑 內城里 60-1(奉化郡 春陽面 小魯里)의 金泰錫先生이며, 瓦版은 先代로부터 傳해지는 遺物이라 傳言하였다. 本 研究를 위한 好意的인 資料提供과 協助에 感謝하는 바이다.

2) 一般的으로 瓦版(瓦板)은 土版(土板)·陶版(陶板)·瓷版(瓷板)·粘土版(粘土板) 등이 라고도 하며, 用語上으로 土版·陶版·瓷版·粘土版 등에 비해 廣義인 듯 하다. 이들은 한결같이 書寫材料의 名稱에서 印刷術媒體 製作材料의 名稱으로 발전하면서 細分된 것이다. 書寫材料로서의 瓦版·土版·陶版·瓷版·粘土版 등은 書籍이나 誌石의 概念으로도 使用되고 있으나, 印刷術媒體 製作材料로서의 瓦版·土版·陶版·瓷版·粘土版 등은 冊版(冊板)의 概念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本 研究에서의 瓦版은 印刷術媒體로서의 冊版인 土版과 동등한 概念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書寫材料에 筆記具를 사용하여 기록한 著作物이다. 廣義로는 ‘文字나 記號 등에 의해서 傳達되는 모든 記錄情報’를 의미하며, 狹義로는 ‘記錄情報 가운데서도 각 學問分野마다 學術的 價値를 지닌 記錄資料’를 의미하는 것이다.

記錄資料의 本質的인 意義는 그것이 지니는 知的인 內容 또는 情報에 있다. 窮極的으로 記錄資料는 紙類나 기타의 書寫材料에 文字나 記號 등 共通의 象徴(symbol)을 통해서 情報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하여 利用者들로 하여금 그 情報을 解得하고 活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人類는 印刷術이 發明되기 전에 筆寫를 통하여 知識情報을 傳達하였다. 筆寫本을 生産해 낼 수 있는 주요한 3가지 要素는 文字·書寫材料·筆記具 등이었으며, 이러한 要素의 餘件들이 먼저 充足되어야 비로소 書籍이 탄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筆寫本은 筆寫過程에서 誤字와 脫字 등 本文의 內容을 변화시키는 弊端이 없지 않았으므로, 知識과 文化의 水準이 점차 발달하고 올바른 本文의 需要가 增加되자 마침내 필연적으로 印刷術이 發明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印刷術의 發明은 文化的·技術的·社會的인 주요한 3가지 條件들이 먼저 成熟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다.³⁾

初期의 印刷術은 中國에서 胎動하여 東·西洋의 各國으로 傳播된 것이다. 韓國은 地政學的으로 中國과 隣接하여 비교적 일찍이 中國의 新技術인 印刷術을 受容하고 發展시켜 韓國의 실정에 알맞은 固有한 印刷術의 發展에 成功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를 더욱 繼承·發展시켜 世界史에 獨步的인 印刷術의 王國으로 성장하였다.⁴⁾

2.2 印刷術의 種類

東·西洋에서 筆寫時代에 일찍부터 사용되었던 각종 書寫材料는 印刷術의 發展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3) 中國印刷博物館 編, 『中國古代印刷史圖冊』(香港: 文物出版社, 1998), 23-39.

4) 朴文烈, 『古印刷出版文化의 理解』(淸州: 泰一文化社, 2003), 39-99.

일반적으로 印刷術은 版印刷術과 活字印刷術로 大別된다.

論理的으로 版印刷術은 版의 材料에 따라 土(瓦·粘土·陶·瓷)版·石版·金屬(銅·鐵·鉛 등)版·木版·紙版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活字印刷術도 活字의 材料에 따라 土(膠泥·陶·瓷)活字·木活字·[石活字]·金屬(銅·鐵·鉛)活字·[紙活字]·匏活字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古代의 書寫材料과 印刷術發展과의 相互關係를 정리하여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1> 書寫材料과 印刷術 種類와의 關係

號	書寫 材料	東 洋	西 洋	版 印 刷 術	活 字 印 刷 術	備 考
1	土	-	粘土版	土(瓦·粘土·瓷)	土(膠泥·陶·瓷)	
2	石	石經	[石]	石	[石]	
3	파피루스	-	파피루스	-	-	
4	皮紙	-	羊皮紙	-	-	
5	龜甲獸骨	甲骨書	-	-	-	
6	青銅器	青銅器銘文	-	金屬(銅·鐵·鉛)	金屬(銅·鐵·鉛 등)	
7	竹·木	竹簡木牘	木版	木	木	
8	帛	帛書	帛書	-	-	
9	紙	紙書	紙書	紙	[紙]	
10	匏	-	-	-	匏	

人類의 文化發展에 크게 영향을 끼친 印刷術은 版印刷術의 木版印刷術과 活字印刷術의 木活字印刷術 및 金屬活字印刷術일 것이다.⁵⁾

韓·中 兩國의 初期의 印刷術은 일반적으로 活字印刷術보다는 版印刷術이 先行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木版印刷術이 그 主流를 이루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各國마다 各種의 모든 版印刷術이 活字印刷術보다 先行하여 發展한 것만도 결코 아니었다.⁶⁾

5) 朴文烈, 『古印刷出版文化의 理解』(淸州: 泰一文化社, 2009), 31-180.

6) 一般人들은 대체로 반드시 版印刷術이 活字印刷術보다 先行하여 普及되고 實施되었던 것으로 判斷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듯하다. 本 研究의 대상인 「般若波羅蜜多心經」 瓦版을 비롯하여 筆者가 數年 前에 目見한 「金剛般若波羅密經」 銅版과 「千壽經」 金版 등의

3. 瓦版과 瓦版印刷術

古代 西洋에서는 東洋의 瓦版과 類似한 형태의 版型으로는 粘土로 제작된 粘土版(Clay Tablet)이 있었다. 古代 文明의 發祥地인 티그리스강(Tigris R.)과 유프라테스강(Euphrates R.)의 사이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地方에서는 良質의 粘土가 많이 생산되어 일찍부터 粘土版으로 瓦本을 제작하였다.

粘土版은 火魔·水魔·戰禍 등은 물론 動物로의 被害도 막을 수 있고 파괴되더라도 그 破片을 모으면 復元이 가능하였으므로 메소포타미아地方을 비롯한 西洋에서는 數千年 동안에 걸쳐 粘土版의 書籍文化가 盛行하였다.⁷⁾

그러나 古代 메소포타미아地方에서 粘土版이 製作된 目的과 近代의 印刷術에서 瓦版이 製作된 目的은 사뭇 다른 것이다. 西洋의 粘土版이 一種의 書籍이었다면, 東洋의 瓦版은 印刷術媒體의 冊版이었던 것이다.

3.1 瓦版의 概念과 製作法

東洋의 瓦版은 진흙[瓦土·粘土·瓷土·膠泥] 등의 각종 土壤으로 版型을 만들어 그 위에 文字나 그림 등을 反對로 彫刻하여 기와나 벽돌처럼 구워낸 印出用 冊版을 의미하는 것이다.

西洋의 粘土版을 제작하는 방법은 粘土⁸⁾로 적당한 크기와 두께를 가진 版型

所藏者들은 한결같이 印刷術發展의 단계로 볼 때 活字印刷術보다는 版印刷術이 先行하였을 것이라는 論理的인 面만을 強調하면서, 자신들의 所藏品이 高麗時代 金屬活字印刷術 發明以前에 製作된 版이라 主張하는 傾向을 보였다. 그러나 論理的인 印刷術의 發展 段階가 各國마다 劃一的으로 適用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이러한 主張에 대해서는 신중한 檢討가 요구된다 하겠다.

7)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에 있던 아시리아(Assyria)의 아슈르바니팔(Ashurbanipal, ?-?)왕은 藝術과 文學을 애호하여 니네베(Nineveh)에 대도서관을 建築하고 粘土版의 古文書를 收藏하였다. 니네베도서관에서 발굴된 2萬餘點의 粘土版에 수록된 內容의 主題는 神話·文化·歷史·醫學 등이었다.

8) 粘土(clay): 土壤粒子 또는 粘土粒子로 구성된 巖石으로 土壤·窯業粘土·泥岩·氷河性 粘土·深海性粘土 등이 포함되며 대부분의 粘土는 風化產物이다. 粘土物質은 물에 젖은

을 만들어 版面이 굳어지기 전에 갈대나 나뭇조각을 뾰족하게 깎은 道具로 楔形文字를 바로 새겨 넣어 햇볕에 乾燥한 뒤 가마(窯)에 넣고 燒成함으로써 書籍化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東洋의 印出用 瓦版을 製作하는 방법은 陶土⁹⁾나 紫砂泥¹⁰⁾ 혹은 高嶺土¹¹⁾ 등을 햇볕에 잘 말려 粉碎하여 체질을 한 뒤에 豆腐를 만들고 걸러져 나오는 廢水를 첨가하여 돌절구(石臼)에 넣고 잘 찼어 약 5-8cm 정도 두께의 납작한 版型을 만들어 陰地에서 10분의 8 정도로 건조시킨다. 그런 후에 다시금 桑皮紙¹²⁾에 印出하고자 하는 本文의 內容을 墨書한 版下本을 건조시킨 版面 위에 뒤집어 붙이고 竹刀로 字形 혹은 花紋에 따라 새겨낸 후에 土窯 속에 넣고 燒結시켜 完成함으로써 冊版化하는 것이었다.¹³⁾

3.2 瓦版印刷術

東洋의 冊版用 瓦版은 木版의 代用으로 書籍이나 그림 등을 印出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瓦版印刷術은 어디까지나 木版印刷術의 代用이었을 뿐이므로 본격적인 印刷術로 발전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던 듯, 瓦版印刷術은 常用化되거나 一般化되지 못한 狀況이었다.

면 可塑性을 띠고 건조되면 凝集하게 된다. 不純한 粘土는 礫石·타일 및 다른 粗惡한 형태의 陶瓷器에 사용되며, 陶土인 高嶺土는 高品質의 窯業材料로 사용된다.

- 9) 陶土: 陶瓷器의 원료가 되는 高嶺土質의 粘土를 말한다. 陶瓷器를 제작하는 粘土에서의 陶土는 可塑性·耐火性·結晶·融劑 등이 고루 갖추어져 成形이 가능하고 成形體의 乾燥收縮이 적으며, 燒成하여 필요한 性狀과 모양을 갖춘 製品生産이 가능해야 한다. 陶土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粒度和 粒度分布, 可塑性, 成形體의 曲強度, 乾燥體의 曲強度, 鑛物組成이다.
- 10) 紫砂泥: 모래가 섞인 紫色의 진흙을 지칭하는 것이다.
- 11) 高嶺土: 高陵土·白陶土라고도 하며 바위 속에 있는 長石類가 탄산 또는 물에 의해 화학적으로 분해되는 風化에 의해 생성된다. 陶瓷器의 原料로 사용되며 中國의 高陵에서 많이 산출되었으므로 高嶺土라 한다. 韓國에서는 흔히 白土라고 하며 慶南 河東地方에서 良質의 白土가 많이 생산된다.
- 12) 桑皮紙: 뽕나무 껍질을 원료로 제작된 질긴 종이로 ‘桑紙’라고도 한다.
- 13) 中國網庫: <<http://www.99114.com/Article/>>.

冊版用 瓦版을 印出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서 서로 다른 墨色을 선택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墨汁¹⁴⁾ · 紅花液¹⁵⁾ · 赭黃土¹⁶⁾ 등에 明礬¹⁷⁾이나 食鹽¹⁸⁾ 등을 첨가한 墨色을 版面에 골고루 바른 뒤에 그 위에 종이(紙)를 덮고 印鬚로 잘 문질러서 印出하였다. 이러한 瓦版印刷術은 製作과 印出의 비용이 매우 저렴하였으나, 印刷의 品質은 여타 木版 · 石版 · 活字 등의 印刷品에 비하여 매우 粗惡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廉價라는 이유만으로 그나마 下層社會에서 流行될 수 있었던 것이다.¹⁹⁾

中國의 경우 歷代의 史志나 稗乘 등에는 瓦版印刷術에 관한 內容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瓦版印刷術은 늦어도 康熙年間(1662-1722) 末期에는 이미 土版印刷術의 형태로 시작된 듯하며, 中國解放(1949) 前까지도 溫州²⁰⁾의 西山一帶에는 이러한 版式을 제작하여 印刷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瓦版印刷術을 통한 印刷物의 紙類는 대부분 溫州地域에서 생산되는 竹紙²¹⁾를 染色하여 印刷한 것이었다. 印刷物의 內容은 대체로 당시에 流行하던 時調類였는데 民間의 曲調로는 <孟姜女過關>²²⁾ · <五更調>²³⁾ · <蕩河船> 등이 있었으며, 宗教

-
- 14) 墨: 松木 및 기타 植物의 기름을 燃燒시켜 생긴 그을음을 阿膠로 굳혀 만든 것으로 버루에 갈아서 탄소용액의 먹물(墨汁)을 만든다. 예로부터 中國에서 墨은 文房具의 일종으로 발전하여 書畫와 印刷術 등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 15) 紅花: 紅草 또는 '잇꽃'이라고도 하며, 적색계통의 植物性 染料의 하나이다. 顏料화된 것은 입술연지 · 종이 · 식품 등의 着色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 16) 赭黃土: 硅土와 흙으로 이루어진 自然狀態의 흙이다. 黃土 등의 土顏料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특히 全羅南道地方의 黃土는 酸化鐵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赤色 기운이 강하고, 慶尙道地方의 黃土는 黃色 기운이 강한 편이다.
 - 17) 明礬: 白礬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그 結晶은 물에 잘 녹고 結晶을 가열하면 結晶水에 녹아 용액이 된다. 白礬은 대부분 凝結劑나 물들이러는 纖維와 染料를 연결시켜 染色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媒染劑로 사용된다.
 - 18) 食鹽: 나트륨과 염소의 화합물로서 助味 · 鹽藏 등의 일상생활과 功業方面에서 사용된다. 動物에게 소금은 體內的 體液에 존재하며 滲透壓을 유지하는 중요한 구실을 하여 생리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 19) 中國網庫: <<http://www.99114.com/Article/>>.
 - 20) 溫州: 東中國海에 면하는 溫州灣 내부에 위치하며, 甌江流域에서 산출되는 茶 · 竹材 · 木材 · 감귤류와 市內에서 생산되는 陶瓷器 · 종이 · 織布 등을 移出하고 있다.
 - 21) 竹紙: 中國에서 어린 대나무의 纖維를 原料로 하여 생산되던 얇은 종이로 '竹葉紙'라고도 하며 속칭 '花張紙'라고도 한다.

的 宣傳品으로는 道教의 각종 符籙을 비롯하여 竈神像· 각종 經文의 咒語· 各寺廟의 籤詩 등은 물론 民間의 出版物인 冊曆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流傳된 廉價의 大衆的인 媒體物이었다.²⁴⁾ 따라서 泥土로 版型을 제작하여 인출해낸 瓦版本은 당시 大衆들의 讀書物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짐작된다.

심지어 1956년 무렵에 중국에서 文化部門의 書籍·新聞·雜誌·音盤·映像物 등의 淨化運動이 전개되었을 때 沒收되어 올라 온 印刷物의 大多數는 瓦版本이었다고 한다. 그 중의 1장짜리 『摩柯般若波羅蜜多心經』에는 上面에 ‘民國廿四年’ 등의 글자가 쓰여 있었는데, 石版印刷物에 비해 粗雜하기는 하였으나 字體가 端正하고 分明하며 가장자리에 汚染도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²⁵⁾ 이로 미루어 中國에서는 民國 24년(1935) 당시까지도 여전히 瓦版印刷術이 존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日本에서는 어떤 重要的 事件의 場面을 瓦版²⁶⁾으로 제작하고 이를 印出해서 大衆들에게 有料로 配布한 바 있었는데, 이를 ‘瓦版本’ 또는 ‘瓦版新聞’이라 하였다.²⁷⁾ 이는 江戸時代(1603-1868)에 天災地變이나 大火災, 自決 등의 時事性이 높은 소식을 迅速히 傳達하기 위해서 製作되었던 것으로 오늘날의 消息紙나 情報紙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瓦版本을 街頭에서 팔고 읽으며 다녔다고 하여 ‘讀賣瓦版’이라고도 하였으나, 실제로 瓦版에 版刻한 것보다는 木版에 版刻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대부분 1장의 版型에 版刻한 형태였으나 插畫가 들어간 경우도 있었으며, 주로 江戸幕府의 末期에 많이 印刷되었다. 瓦版은 明治時

22) 孟姜女: 中國의 民謠로 始皇帝가 萬里長城을 쌓을 때 祭物이 되어서 죽은 人부 范杞梁의 妻가 남편을 생각하며 부른 悲歌이다. <孟姜女過關> 등 여러 종이 있고, 中國劇인 梯子에서도 <哭長城>이라는 題目으로 演出되기도 한다.

23) 五更: 중국 周朝부터 설치한 天子의 스승으로 5가지의 일인 貌·音·視·聽·思를 아는 자를 말한다. 『禮記』의 <樂記篇>에 ‘三老와 五更을 大學에서 먹인다(食三老五更於大學)’라 記錄되어 있어, 五更은 국가적으로 尊待하는 賢老를 지칭하는 말로 轉用되었다.

24) 中國網庫: <<http://www.99114.com/Article/>>.

25) 中國網庫: <<http://www.99114.com/Article/>>.

26) 瓦版(かわらばん): 江戸時代に 찰흙에 글자나 그림을 새겨서 기와처럼 구운 印刷版 또는 그것으로 印刷한 것이다. <네이버 日本語辭典: <http://jpdic.naver.com/>>.

27) 네이버 用語辭典: <<http://terms.naver.com/>>.

代(1868-1912) 初期까지도 印刷되었다고 하나, 그 후에는 新聞의 등장과 함께 衰退하고 말았다.²⁸⁾ 現存하는 日本 最古의 瓦版은 오사카(大坂)의 戰鬪를 記事化한 것이다. 現在 瓦版은 揭示板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²⁹⁾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에서의 瓦版印刷術은 清朝 康熙年間(1662-1722) 무렵에 시작되어 清朝末期의 盛行期를 거쳐 近代에까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日本에서는 江戸時代(1603-1868)에 시작되어 江戸末期의 盛行期를 거쳐 明治年間(1867-1912) 初期까지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3 瓦版印刷術 關聯 記錄

瓦版印刷術은 중국의 경우 늦어도 康熙年間(1662-1722) 末期에 이미 土版印刷術이 시작되고 이를 통해 書籍이 刊行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中國에서 새로이 시작된 土版印刷術이었던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土版印刷術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음은 두말할 나위 없었다.

그 중에서도 崔德中(?-?)을 비롯하여 湛軒 洪大容(1731-1783) 등은 일찍부터 土版印刷術에 關心을 가졌던 人物들로 나타나고 있다.

崔德中(?-?)은 肅宗 39년(계사, 1713) 正月에 謝恩副使 尹趾仁(1656-1718)을 수행한 軍官으로서 北京의 玉河館에 체류하면서 各色의 書籍을 가져다 열람하고 “淸國에는 新刊書가 많은 점에서 文具를 없애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모든 刻版은 한결같이 土版이라 工役이 매우 수월하였으며, 書名이 너무 많아 다 볼 수 없을 정도였다. 날마다 나오는 邸報도 土版을 사용하였는데, 그 印刷하는 工役이 便易하기 때문이었던 것이다.”³⁰⁾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28) 위키百科事典: <<http://ja.wikipedia.org/wiki/>>.

29) 위키百科事典: <<http://ja.wikipedia.org/wiki/>>.

30) 崔德中 著, 『燕行錄日記』(影印本,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2-1984) 癸巳(1713)年 正月 初五日條.

“晴大風 留玉河館 館中一行 同是一國之人 人心不淑 夜則脫取馬勒 亦偷衣服 而無計搜捕 極可痛駭 取見各色書冊 而淸國之新刊者亦多 可知不廢文具 而凡諸刻板 皆以土板故工夫甚歇 冊名甚繁 不可盡見矣 逐日邸報 亦用土板.”

때, 중국에서는 康熙 52년(1713) 이전에 이미 土版印刷術이 널리 普及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實學者 湛軒 洪大容(1731-1783)도 土版印刷術에 대하여 남다른 關心의 소유자였던 듯하다. 湛軒은 영조 42년(1766)에 冬至使의 書狀官인 季父 洪櫓(1722-1809)의 隨行軍官으로 燕京에 갔을 때 琉璃廠의 ‘味經齋’라는 書店主人 周氏와 談話를 통해 “中國의 書籍은 대체로 土版을 사용하여 費用은 적게 들지만 功力이 갑절이나 든다는데 어떻습니까?”고 묻자, 주인 周氏가 “나무는 닦기 쉬워 반드시 堅韌한 것을 골라 써야하나, 土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고 대답한 내용을 자신의 文集 속에 기록하고 있다. 이어서 “中國에도 金屬活字[鑄字]나 鐵版이 있습니까?”고 묻자, 주인 周氏가 “모두 木版을 사용하고 鐵版이나 金屬活字[鑄字]에 관해서는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고 대답한 내용을 자신의 文集 속에 기록하고 있다.³¹⁾

또한 湛軒은 中國人 孫有義에게 “東方에서 書籍을 版刻하는 일은 쉽지 않은데 中國에서는 자질구레한 稗說이나 時文類까지도 印刷하여 널리 配布하고 있으니, 이에 반드시 簡易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金屬(鐵鑄)活字나 梨木·棗木에다 새긴다면 大國의 事力이라 할지라도 容易할 수 없을 것입니다. 傳聞에 의하면 ‘土版法’이 있어서 費用도 적게 들고 使用도 便利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요?”라고 질문한 바³²⁾ 있었다. 이에 대한 孫有義의 대답은 “書籍을 版刻하는데 簡易한 方法이 있다는 것은 아직 듣지 못하였으며, 刻木으로는 梨木·棗木·榆木·杜木의 종류를 주로 사용합니다. 오직 宋朝 時에만 銅版으로

31) 洪大容 著, 『湛軒書』(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69) 外集 卷7, 燕記, 蔣周問答, [英祖 42(1766)年] 正月 30日條.

“[正月]三十日 有事往琉璃廠 復至味經齋 見舖主略致蔣生虛辱之意 借紙筆作書 付舖主傳于蔣生 … 舖主姓周 應文之族叔也 付書畢 見舖內新刊書籍 溢于架上 余曰 聞中國書多 以土版費省而功倍 信乎 周笑曰 木猶易刊 必擇堅韌 土版必無之理也 余曰中國亦有鑄字鐵板乎 周曰 皆用木板 鐵字亦未聞 茶畢而歸.”

32) 洪大容 著, 『湛軒書』 外集 卷1, 杭傳尺牘, ‘與孫蓉洲書’條.

“東方書籍 板刻極不易 中國雖瑣瑣稗說時文之類 印布甚廣 此必有簡易之法 如鐵鑄活字 梨棗鏤刻 則雖大邦事力 不應若是容易 傳聞有土版之法 費小而用便 然否.”

만든 것이 있었는데, 清朝에서도 우연히 만들었습니다. 무릇 書畫는 모두 石刻을 사용하는데 간혹 나무나 벽돌로 하기도 합니다. 土版에 관한 이야기는 실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書籍 1권에는 字數의 多寡가 있어 그 비용을 豫定하기가 어려우며, 또 그 工價가 각 地方마다 낮고 높음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北京의 경우에는 1萬字를 새기는데 紋銀 약 10兩이 소용되나, 浙江이라면 5-6兩쯤이면足할 것입니다.”³³⁾라는 것이었으며, 鄧師閔의 대답은 “古人들이 칼로 글을 새기고 竹片에 글자를 수록하였으므로 지금까지도 ‘靑史’라는 말이 있습니다. ‘靑’은 竹色이므로 文字는 간단하나 그 理致는 진진합니다. 秦人 蒙恬(?-BC 210)이 毛筆을 만들고 漢人 蔡倫(?-121)이 종이(紙)를 제작하면서부터 글자를 기록하기는 容易하였으나 문자는 다소 번거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손으로 書寫하고 毛筆로 抄錄하였던 관계로 1字를 書寫하면 1字만을 얻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五代에 이르러 馮道(882-954)가 棗·梨 등의 木版에 글자를 새겨서 한번에 1萬張이라도 박아 낼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은 손으로 書寫하는 노고를 면하고 세상에는 筆記하는 공부가 적어지고 말았습니다. 서적이 점점 많아져 수레에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리고 방에 쌓으면 들보에 닿을 정도로 되자,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재주꾼들이 여기 저기에서 몇 字나 몇 句節을 따다 版刻하고 印出하여 사람들을 현혹시켜 팔아먹고 심지어 稗官의 外史라든가 民間의 歌謠나 外來語 등을 刊出하지 않는 것이 없었으므로 浮詞만 더욱 많아지고 正經은 도리어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겨가 많고 쌀이 적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겨만 남고 쌀이 아주 없어질까 두려우니, 木版이 그 罪의 根源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찍이 ‘馮道는 臣下の 도리만 없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실로 萬世에 文字에 관한 罪人이다.’고 하였더니, 형(湛軒)께서 木版과 土版에 관해 문기에 이같이 말하였던 것인데, 이 議論은 어떠하십니까?”³⁴⁾라는 것과 “塘報(邸報)만은 活字로 새겨서 수시로 印刷하는

33) 洪大容 著, 『湛軒書』外集 卷1, 杭傳尺牘, ‘與孫蒼洲書’條.

“孫[有義]答曰 書籍刻版 未聞簡易之法 其木多用梨棗及榆杜之類 惟宋時則有以銅版者 今朝廷亦偶爲之 凡書畫皆用石刻 間有以木以磚者 土版之說 實所未聞 一卷中字有多寡 所費難以預定 且其工價 各處低仰不一 今以京論 如字一萬約紋銀十兩 若在江浙則五六兩足矣.”

34) 洪大容 著, 『湛軒書』外集 卷1, 杭傳尺牘, ‘與鄧汶軒書’條.

데, 대개는 木活字(木字)이며 金屬活字(鐵字)는 아닙니다. 版刻하는 費用은 1字마다 약 銀 2-3分이 所用됩니다.”³⁵⁾라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崔德中(?-?)이 肅宗 39년(1713) 正月에 北京에서 瓦版本을 目見하고 신기하게 여겨서 기록으로 남긴 점과 湛軒 洪大容(1731-1783)이 英祖 42년(1766)을 前後하여 琉璃廠의 ‘味經齋’ 主人인 周氏를 비롯하여 孫有義·鄧師閔 등과의 談話를 記錄으로 남긴 점 등을 통해서 볼 때, 韓國에서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瓦版印刷術이 시작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湛軒이 孫有義와 鄧師閔에게 “傳聞에 의하면 ‘土版法’이 費用도 적게 들고 使用하기도 편리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요?”고 질문한 것이ら든가, ‘味經齋’ 主人인 周氏에게 “中國의 書籍은 대체로 土版을 사용하여 費用은 적게 들지만 功力이 갑절이나 든다는데 어떻습니까?”라고 질문한 것은 당시 韓國에서 實行되지 않고 있는 新技術에 관하여 질문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湛軒이 “中國에도 金屬活字[鑄字]나 鐵版이 있습니까?”고 묻자 ‘味經齋’ 主人인 周氏가 “모두 木版을 사용하고 鐵版이나 金屬活字[鑄字]에 관해서는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한 내용을 記錄으로 남기고 있는 점은 英祖 42년(1766) 무렵에 韓國에서 一般的으로 常用되고 있던 印刷術이 어떤 類型의 것이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현인 듯하다.

“汶軒[鄧師閔]曰 古人書字以刀 載字以竹 至今猶有青史之語 青者 竹之色也 故文字簡而理真 自秦人蒙恬作筆 漢人蔡倫作紙 記字易而文字稍繁 然猶手書筆抄 抄一字只得一字也 迨五代 馮道制以雕字 棗梨木板 一印萬張 人免手書之勞 世少筆記之學 書籍漸多 汗牛充棟 而好奇之士 擄竊隻字片語 板刻印書 逢人賤售 甚至稗官外史 閭閻外語 無不刊出 浮詞愈多 正經反掩 始則糠多米少 久恐有糠而絕米 豈非木板作之俑哉 愚嘗謂馮道不惟無臣道 又實萬世文字之罪人也 因吾兄木板土板之詢而及之 此論如何.”

35) 洪大容 著, 『湛軒書』 外集 卷1, 杭傳尺牘, ‘與孫蓉洲書’條.

“鄧[師閔]答曰 惟塘報係刻活字 隨時砌印 盖木字非鐵字也 刻板之費 每一字約銀二三分.”

4. 「般若波羅蜜多心經」의 概觀

4.1 「般若波羅蜜多心經」의 漢譯

「般若波羅蜜多心經」의 漢譯本으로는 (1) 唐 三藏法師 玄奘(602-664) 漢譯의 「般若波羅蜜多心經」(K0020), (2) 紫臣 施護(?-1017) 漢譯의 「佛說帝釋般若波羅蜜多心經」(K1190), (3) 摩竭提國 三藏沙門 法月(653-743) 漢譯의 「普遍智藏般若波羅蜜多心經」(K1267), (4) 罽賓國 三藏 般若(?-?)와 利言(?-?) 等 漢譯의 「般若波羅蜜多心經」(K1383) 등 4종류가 있다.

「般若波羅蜜多心經」은 般若波羅蜜의 핵심적인 內容과 그 功德을 說法하고 있는 經典이며, 序分과 流通分이 갖추어져 있는 廣本과 序分과 流通分이 없는 略本の 2종류가 있다.

4.1.1 「般若波羅蜜多心經」(玄奘 譯, K0020)

唐朝 三藏法師 玄奘(602-664) 漢譯의 「般若波羅蜜多心經」은 648년 혹은 649년경에 번역된 것으로 「般若心經」 또는 「心經」이라 略稱하기도 한다. 本經은 序分과 流通分이 없는 略本에 해당되며, 600部 「般若經」의 핵심적인 思想을 가장 간략하게 추려 놓은 經典이다. 이러한 연유로 모든 佛敎宗派의 法會나 儀式 등에서 반드시 讀誦되고 있는 經典이다. 本書의 註釋書로는 圓測(613-696)의 「般若心經贊」(1卷)과 窺基(632-682)의 「般若心經幽贊」(2卷)이 있다.³⁶⁾

4.1.2 「佛說帝釋般若波羅蜜多心經」(施護 譯, K1190)

宋朝 西天譯經三藏 朝散大夫 試鴻臚卿傳法大師 施護(?-1017) 漢譯의 「佛

36) 高麗大藏經지식베이스(<http://kb.sutra.re.kr/ritk/index.do/>),
高麗大藏經解題(<http://kb.sutra.re.kr/ritk/search/HaejeView.do/>).

說帝釋般若波羅蜜多心經」은 980-990년 사이에 번역된 것으로 「帝釋心經」이라 略稱하기도 한다. 本經은 序分과 流通分이 갖추어져 있는 廣本에 해당되며, 부처님이 帝釋天王에게 般若波羅蜜多의 핵심을 說法한 것이다. 부처님이 王舍城의 鷲峯山에 있을 때 여러 比丘와 菩薩들과 함께 있었는데, 世尊은 帝釋天王에 대해서 般若波羅蜜은 그 뜻이 매우 깊다고 하면서 說法하였다. 모든 法은 平等하듯 般若波羅蜜도 平等하고 모든 法이 不思議하듯 般若波羅蜜도 不思議하며, 三業이 淸淨하듯 般若波羅蜜도 淸淨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般若波羅蜜의 의미는 매우 깊고 無限하다는 것을 說法하고 모든 法이 空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眞言을 말하고 있다. 經文은 매우 간결하나 이에 비하여 末尾에 이어지는 多羅尼 부분은 비교적 長篇이다.³⁷⁾

4.1.3 「普遍智藏般若波羅蜜多心經」(法月 譯, K1267)

唐朝 摩竭提國 三藏沙門 法月(653-743) 重譯의 「普遍智藏般若波羅蜜多心經」은 741년에 번역된 것으로 「心經」 또는 「般若心經」으로 略稱하기도 한다. 本經은 序分과 流通分이 갖추어져 있는 廣本에 해당되며, 般若波羅蜜의 핵심적인 內容과 그 功德을 說法하고 있다. 經名은 “菩薩은 般若波羅蜜多의 核心을 가지고 있으므로 ‘普遍智藏’이라 이름한다”³⁸⁾는 데에서 유래된 것이다. 王舍大城의 靈鷲山에 모인 菩薩들 중에서 觀世音菩薩, 文殊師利菩薩, 彌勒菩薩이 上首가 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三昧와 摠持를 얻어서 不思議에 머물고 있으며, 또한 觀自在菩薩이 깊은 般若波羅蜜多를 행할 때에도 禪定에 들어서 三昧의 힘으로 한다고 說法하고 있다. 이렇게 三昧 속에서 般若波羅蜜多를 行한다는 점은 여타의 譯本들과 비교할 때 매우 독특한 점이다.³⁹⁾

37) 高麗大藏經지식베이스(<http://kb.sutra.re.kr/ritk/index.do/>),
高麗大藏經解題(<http://kb.sutra.re.kr/ritk/search/HaejeView.do/>).

38) 菩薩 有般若波羅蜜多心 名普遍智藏.

39) 高麗大藏經지식베이스(<http://kb.sutra.re.kr/ritk/index.do/>),
高麗大藏經解題(<http://kb.sutra.re.kr/ritk/search/HaejeView.do/>).

4.1.4 「般若波羅蜜多心經」(般若·利言 等譯, K1383)

唐朝 罽賓國三藏 般若(?-?)와 利言(?-?) 등이 漢譯한 「般若波羅蜜多心經」은 790년에 翻譯된 것으로 「心經」 또는 「般若心經」으로 略稱하기도 한다. 本經은 序分과 流通分이 갖추어져 있는 廣本에 해당되며, 그 구성은 「佛說聖佛母般若波羅蜜多經」과 유사하다. 高麗大藏經에는 들어 있지 않는 異譯本으로는 唐朝에 智慧輪이 번역한 「般若波羅蜜多心經」(T254)을 비롯하여 唐朝의 法成이 번역한 「般若波羅蜜多心經」(T255) 등이 있다.⁴⁰⁾

4.2 「般若波羅蜜多心經」의 構成

「般若波羅蜜多心經」은 크게 立義分, 婆娑分, 功能分, 總結分 등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4.2.1 立義分

立義分은 “觀自在菩薩께서 깊은 般若波羅蜜多를 행하실 때, 五蘊이 모두 空한 것을 照見하고 온갖 苦厄을 濟度하느니라!”에 해당하는 25字⁴¹⁾의 經文이다.

이는 般若의 주된 뜻을 세우는 부분으로 智慧로써 彼岸을 건너는 이치를 살피서 一切의 현상이 空하다는 것을 밝힌 다음에 一切의 괴로움을 解脫하였다는 내용이다.

4.2.2 婆娑分

婆娑分은 “舍利佛이여! 色이 空과 다르지 않고 空이 色과 다르지 않으며 色이

40) 高麗大藏經지식베이스(<http://kb.sutra.re.kr/ritk/index.do/>),

高麗大藏經解題(<http://kb.sutra.re.kr/ritk/search/HaejeView.do/>).

41) 觀自在菩薩行深 般若波羅蜜多時 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 (25字)

곧 空이고 空이 곧 色이니 受·相·行·識도 그러하니라. 舍利佛이여! 이 모든 법의 空相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空 가운데는 色도 없고 受·相·行·識도 없으며, 色·聲·香·味·觸·法도 없으며 눈의 境界도 없고 意識의 境界까지도 없으며, 無明도 없고 또한 無明이 다함도 없으며, 늙고 죽어도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이 다함도 없으며, 괴로움과 괴로움의 原因과 없어짐 및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으며, 智慧도 없고 얻을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에 해당하는 114자⁴²⁾의 經文이다.

이는 般若의 空觀으로 現象과 價値와 方便의 敎法施設을 觀照하는 것으로 여기서 物質現象이 空이며 空이 곧 一切現象인 것이다. 이와 같은 空性은 幢만하여 六根·六識·十二因緣法 나아가 四諦法까지도 없는 것을 밝혀 마침내 無所得空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릇된 認識을 깨뜨리고 般若의 空觀으로 비취 모든 現象과 價値와 方便을 智慧의 空道理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4.2.3 功能分

功能分은 “菩薩은 般若波羅蜜多에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顛倒된 夢想에서 멀리 벗어나 究竟涅槃에 들어가며, 三世의 모든 부처님도 般若波羅蜜多에 의지하므로 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얻느니라!”에 해당하는 56字⁴³⁾의 經文이다.

이는 智慧의 空觀으로 一切現象을 비추어 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說法한 부분으로 涅槃의 境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五蘊과 十八戒 및 敎法까지도 般若의 光明 앞에서는 存在性이 空虛함을 보이고는 거기에 現前된 境地가 어떤

42) 舍利子 色不異空 空不異色 色即是空 空即是色 受想行識 亦復如是 舍利子 是諸法空相 不生不滅 不垢不淨 不增不減 是故 空中無色 無受想行識 無眼耳鼻舌身意 無色聲香味觸法 無眼界 乃至 無意識界 無無明 亦無無明盡 乃至無老死 亦無老死盡 無苦集滅道 無智亦不得 以無所得故.

43) 菩提薩埵 依般若波羅蜜多故 心無罣碍 無罣碍故 無有恐怖 遠離顛倒夢想 究竟涅槃 三世諸佛 依般若波羅蜜多 故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마음에 걸림이 없어 自在無碍하며 마침내 大安樂地에 이르러 成佛함을 밝히는 것이다.

4.2.4 總結分

總結分은 “그러므로 아시라! 般若波羅蜜多是 가장 신비한 呪文이고 가장 밝은 呪文이며, 가장 높은 呪文이고 무엇보다도 견줄 수 없는 呪文이므로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眞實하여 虛妄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般若波羅蜜多呪을 說하노니 呪文은 곧 이리하니라. 아제아제(揭帝揭帝) 바라아제(般羅揭帝) 바라승아제(般羅僧揭帝) 모지(菩提) 승사하(僧莎訶)”에 해당하는 65자⁴⁴⁾의 經文이다.

이는 般若波羅蜜다가 眞理實相地의 무한한 功德을 출현시키는 大偉力의 所在로 結論을 맺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참으로 진실함을 거듭하여 다지고 이와 같은 최고 究極의 眞理에 도달한 ‘覺의 境地’를 究명한 결정적 讚句로 一經을 맺고 있다. 智慧로써 彼岸을 건너는 이치는 그대로 眞理의 참 모습임을 밝히고 그것은 곧 무한한 功德을 나타내는 큰 威神力을 가지고 있음을 說하고, 결론적으로 般若의 空觀이야말로 窮極의 眞理에 도달하는 깨달음의 境地임을 규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결정적인 極讚句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다.⁴⁵⁾

5. 「般若波羅蜜多心經」의 瓦版

5.1 瓦版의 形態

본 研究의 대상인 「般若波羅蜜多心經」 瓦版은 唐朝의 玄奘(602-664)이 漢譯

44) 故知般若波羅蜜多 是大神呪 是大明呪 是無上呪 是无等等呪 能除一切苦 眞實不虛 故說般若波羅蜜多呪 卽說呪曰 揭帝揭帝 般羅揭帝 般羅僧揭帝 菩提 僧莎訶.

45) 高麗大藏經지식베이스(<http://kb.sutra.re.kr/ritk/index.do/>), 高麗大藏經解題(<http://kb.sutra.re.kr/ritk/search/HaejeView.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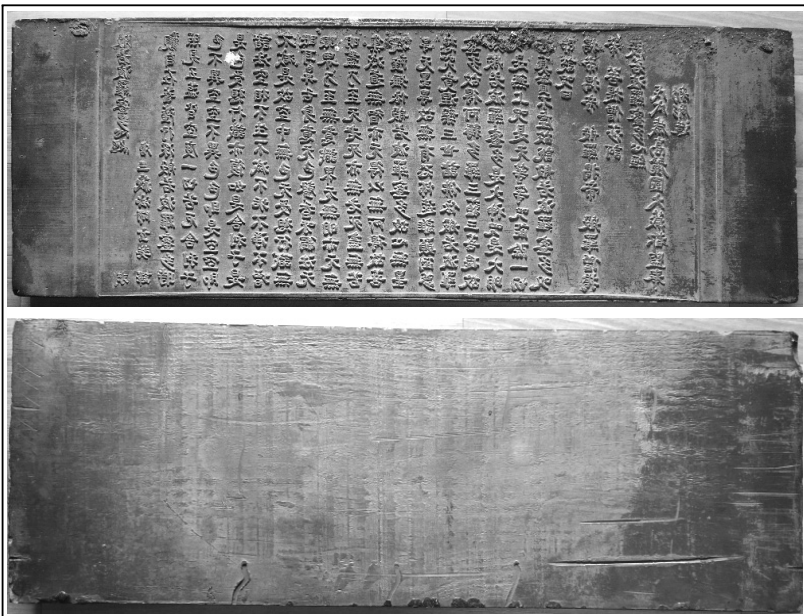
한 「般若波羅蜜多心經」의 瓦版으로 製作地·製作處(者)·製作年度는 不明하다. 版의 枚數는 1枚이고 邊欄은 四周單邊이며 全郭은 세로 23.0cm, 가로 50.0cm이다. 界線은 없고 行字數는 25行 14字이며, 版心과 魚尾는 없다. 版의 크기는 세로 23.0cm 가로 66.0cm이며 두께는 2.7-2.8cm이다. 版의 재료는 瓦이며 重量은 7,675g이다.

「般若波羅蜜多心經」瓦版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般若波羅蜜多心經 / 玄奘(唐, 602-664) 譯. -- 瓦版. -- [製作地不明]: [製作處(者)不明], [製作年不明].

1枚: 四周單邊, 全郭 23.0 × 50.0cm, 無界, 25行14字, 無版心, 無魚尾;
23.0 × 66.0 × 2.7-2.8cm. 瓦. 7,675g. 金泰錫所藏品.

「般若波羅蜜多心經」瓦版의 形態를 <寫眞>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寫眞 1> 「般若波羅蜜多心經」瓦版의 形態

5.2 木版本과의 比較

木版과 瓦版은 版의 재료가 서로 相異할 뿐만 아니라 製作의 方法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각각의 印出本들에서도 分명한 차이가 나타날 것임은 틀림없다.

高麗大藏經의 木版本 「般若波羅蜜多心經」의 書誌記述과 印本の <寫眞>은 다음과 같다.

般若波羅蜜多心經 / 玄奘(唐, 602-664) 譯. -- 木版本. -- [高麗國]: [大藏都監], [高宗 25(1238, 戊戌) 後刷].
1張: 上下單邊, 全郭 22.6 × 50.0cm, 無界, 全葉 25行14字, 無版心, 無魚尾;
35.8 × 57.8cm. 楮紙. 月精寺所藏本.
卷頭題: 般若波羅蜜多心經



<寫眞 2> 木版本 「般若波羅蜜多心經」

瓦版本 「般若波羅蜜多心經」의 書誌記述과 印本の <寫眞>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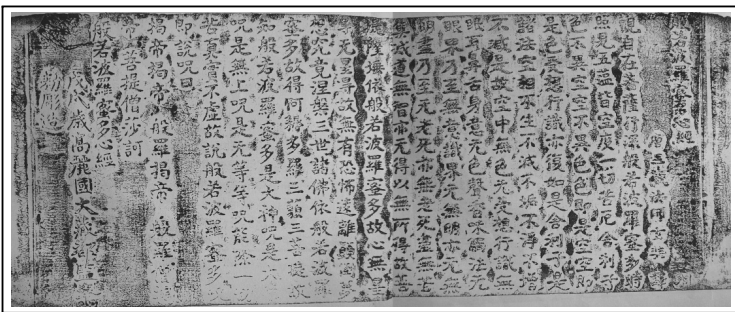
般若波羅蜜多心經 / 玄奘(唐, 602-664) 譯. -- 瓦版本. -- [奉化]: [金泰錫], [2010 後刷].
1張: 四周單邊, 全郭 23.0 × 50.0cm, 無界, 全葉 25行14字, 無版心, 無魚尾;
23.0 × 66.0cm. 楮紙. 金泰錫所藏本.
卷頭題: 般若波羅蜜多心經.



<寫眞 3> 瓦版本 「般若波羅蜜多心經」

木版本과 瓦版本을 비교할 때, 書名(經名)事項을 비롯하여 譯者事項·函次事項·發行事項(發行地·發行處·發行年)·卷張數·界線·行字數·版心·魚尾·字位 등은 一致하나 版本·印出事項(印出地·印出處·印出年)·邊欄·全郭의 크기 등은 서로 相異하다. 그 뿐만 아니라 版刻의 技術과 狀態 및 字體와 字位의 整然度 등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瓦版 「般若波羅蜜多心經」의 印本은 이미 <高麗 高宗時 最初金屬活字本 「般若心經」>이라는 題下에 소개된 바 있다.⁴⁶⁾ 그러나 所藏者는 본 瓦版이 어떤 緣由로 紙面에 소개되었는지에 관하여는 확인할 바 없다고 한다.



<寫眞 4> 「古圖書總類集」에 收錄된 「般若波羅蜜多心經」의 印本

46) 金鏞秀 編, 『古圖書總類集』 (서울: 韓國原圖研究所, 1994), [1-2].

木版本과 瓦版本의 原文과 字體의 變容與否를 파악하기 위하여 木版本 「般若波羅蜜多心經」과 瓦版本 「般若波羅蜜多心經」의 原文을 對比·整理하여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2> 木版本과 瓦版本 「般若波羅蜜多心經」의 原文 對比

行次	高麗大藏經本의 原文	瓦版本의 原文	備考
01	般若波羅蜜多心經 羽	般若波羅蜜多心經 羽	9
02	唐三藏法師玄奘譯	唐三藏法師玄奘譯	8
03	觀自在菩薩行深般若波羅蜜多時	觀自在菩薩行深般若波羅蜜多時	14
04	照見五蘊皆空度一切苦厄舍利子	照見五蘊皆空度一切苦厄舍利子	14
05	色不異空空不異色色即是空空即	色不異空空不異色色即是空空即	14
06	是色受想行識亦復如是舍利子是	是色受想行識亦復如是舍利子是	14
07	諸法空相不生不滅不垢不淨不增	諸法空相不生不滅不垢不淨不增	14
08	不減是故空中無色无受想行識無	不減是故空中無色无受想行識無	14
09	眼耳鼻舌身意无色聲香味觸法无	眼耳鼻舌身意无色聲香味觸法无	14
10	眼界乃至无意識界无無明亦无無	眼界乃至无意識界无無明亦无無	14
11	明盡乃至无老死亦無老死盡無苦	明盡乃至无老死亦無老死盡無苦	14
12	集滅道無智亦无得以無所得故菩	集滅道無智亦无得以無所得故菩	14
13	提薩埵依般若波羅蜜多故心無罣	提薩埵依般若波羅蜜多故心無罣	14
14	寻无罣寻故無有恐怖遠離顛倒夢	寻无罣寻故無有恐怖遠離顛倒夢	14
15	想究竟涅槃三世諸佛依般若波羅	想究竟涅槃三世諸佛依般若波羅	14
16	蜜多故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故	蜜多故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故	14
17	知般若波羅蜜多是大神呪是大明	知般若波羅蜜多是大神呪是大明	14
18	呪是無上呪是无等等呪能除一切	呪是無上呪是无等等呪能除一切	14
19	苦眞實不虛故說般若波羅蜜多呪	苦眞實不虛故說般若波羅蜜多呪	14
20	卽說呪曰	卽說呪曰	4
21	揭帝揭帝 般羅揭帝 般羅僧揭	揭帝揭帝 般羅揭帝 般羅僧揭	12
22	帝 菩提僧莎訶	帝 菩提僧莎訶	6
23	般若波羅蜜多心經	般若波羅蜜多心經	8
24	戊戌歲高麗國大藏都監奉	戊戌歲高麗國大藏都監奉	11
25	勅彫造	勅彫造	3
計	25行 299字(經文 260字)	25行 299字(經文 260字)	299

木版本과 瓦版本 「般若波羅蜜多心經」의 行字數와 原文을 對比한 바, 木版本과 瓦版本은 行字數가 동일하며 原文에 있어서도 字句나 字體에 아무런 변동도

없이 同一하다.

이러한 現狀은 木版本과 瓦版本의 全文의 字印을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圖 1> 木版本과 瓦版本 「般若波羅蜜多心經」의 全文 字印 比較(1)⁴⁷⁾

W0101	W0102	W0103	W0104	W0105	W0106	W0107	W0108	W0114	W0207
S0101	S0102	S0103	S0104	S0105	S0106	S0107	S0108	S0114	S0207
W0208	W0209	W0210	W0211	W0212	W0213	W0214	W0301	W0302	W0303
S0208	S0209	S0210	S0211	S0212	S0213	S0214	S0301	S0302	S0303
W0304	W0305	W0306	W0307	W0308	W0309	W0310	W0311	W0312	W0313
S0304	S0305	S0306	S0307	S0308	S0309	S0310	S0311	S0312	S0313
W0314	W0401	W0402	W0403	W0404	W0405	W0406	W0407	W0408	W0409
S0314	S0401	S0402	S0403	S0404	S0405	S0406	S0407	S0408	S409

47) 'W'는 木版本을, 'S'는 瓦版本을, 數字는 行次와 字位를 표시한 것이다.

<圖 1> 木版本과 瓦版本 「般若波羅蜜多心經」의 全文 字印 比較(2)

W0410	W0411	W0412	W0413	W0414	W0501	W0502	W0503	W0504	W0505
S0410	S0411	S0412	S0413	S0414	S0501	S0502	S0503	S0504	S0505
W0506	W0507	W0508	W0509	W0510	W0511	W0512	W0513	W0514	W0601
S0506	S0507	S0508	S0509	S0510	S0511	S0512	S0513	S0514	S0601
W0602	W0603	W0604	W0605	W0606	W0607	W0608	W0609	W0610	W0611
S0602	S0603	S0604	S0605	S0606	S0607	S0608	S0609	S0610	S0611
W0612	W0613	W0614	W0701	W0702	W0703	W0704	W0705	W0706	W0707
S0612	S0613	S0614	S0701	S0702	S0703	S0704	S0705	S0706	S0707
W0708	W0709	W0710	W0711	W0712	W0713	W0714	W0801	W0802	W0803
S0708	S0709	S0710	S0711	S0712	S0713	S0714	S0801	S0802	S0803

<圖 1> 木版本과 瓦版本 「般若波羅蜜多心經」의 全文 字印 比較(3)

W0804	W0805	W0806	W0807	W0808	W0809	W0810	W0811	W0812	W0813
S0804	S0805	S0806	S0807	S0808	S0809	S0810	S0811	S0812	S0813
W0814	W0901	W0902	W0903	W0904	W0905	W0906	W0907	W0908	W0909
S0814	S0901	S0902	S0903	S0904	S0905	S0906	S0907	S0908	S0909
W0910	W0911	W0912	W0913	W0914	W1001	W1002	W1003	W1004	W1005
S0910	S0911	S0912	S0913	S0914	S1001	S1002	S1003	S1004	S1005
W1006	W1007	W1008	W1009	W1010	W1011	W1012	W1013	W1014	W1011
S1006	S1007	S1008	S1009	S1010	S1011	S1012	S1013	S1014	S1101
W1102	W1103	W1104	W1105	W1106	W1107	W1108	W1109	W1110	W1111
S1102	S1103	S1104	S1105	S1106	S1107	S1108	S1109	S1110	S1111

<圖 1> 木版本과 瓦版本 「般若波羅蜜多心經」의 全文 字印 比較(4)

W1112	W1113	W1114	W1201	W1202	W1203	W1204	W1205	W1206	W1207
S1112	S1113	S1114	S1201	S1202	S1203	S1204	S1205	S1206	S1207
W1208	W1209	W1210	W1211	W1212	W1213	W1214	W1301	W1302	W1303
S1208	S1209	S1210	S1211	S1212	S1213	S1214	S1301	S1302	S1303
W1304	W1305	W1306	W1307	W1308	W1309	W1310	W1311	W1312	W1313
S1304	S1305	S1306	S1307	S1308	S1309	S1310	S1311	S1312	S1313
W1314	W1401	W1402	W1403	W1404	W1405	W1406	W1407	W1408	W1409
S1314	S1401	S1402	S1403	S1404	S1405	S1406	S1407	S1408	S1409
W1410	W1411	W1412	W1413	W1414	W1501	W1502	W1503	W1504	W1505
S1410	S1411	S1412	S1413	S1414	S1501	S1502	S1503	S1504	S1505

<圖 1> 木版本과 瓦版本 「般若波羅蜜多心經」의 全文 字印 比較(5)

W1506	W1507	W1508	W1509	W1510	W1511	W1512	W1513	W1514	W1601
S1506	S1507	S1508	S1509	S1510	S1511	S1512	S1513	S1514	S1601
W1602	W1603	W1604	W1605	W1606	W1607	W1608	W1609	W1610	W1611
S1602	S1603	S1604	S1605	S1606	S1607	S1608	S1609	S1610	S1611
W1612	W1613	W1614	W1701	W1702	W1703	W1704	W1705	W1706	W1707
S1612	S1613	S1614	S1701	S1702	S1703	S1704	S1705	S1706	S1707
W1708	W1709	W1710	W1711	W1712	W1713	W1714	W1801	W1802	W1803
S1708	S1709	S1710	S1711	S1712	S1713	S1714	S1801	S1802	S1803
W1804	W1805	W1806	W1807	W1808	W1809	W1810	W1811	W1812	W1813
S1804	S1805	S1806	S1807	S1808	S1809	S1810	S1811	S1812	S1813

<圖 1> 木版本과 瓦版本 「般若波羅蜜多心經」의 全文 字印 比較(6)

W1814	W1901	W1902	W1903	W1904	W1905	W1906	W1907	W1908	W1909
S1814	S1901	S1902	S1903	S1904	S1905	S1906	S1907	S1908	S1909
W1910	W1911	W1912	W1913	W1914	W2001	W2002	W2003	W2004	W2101
S1910	S1911	S1912	S1913	S1914	S2001	S2002	S2003	S2004	S2101
W2102	W2103	W2104	W2105	W2106	W2107	W2108	W2109	W2110	W2111
S2102	S2103	S2104	S2105	S2106	S2107	S2108	S2109	S2110	S2111
W2112	W2201	W2202	W2203	W2204	W2205	W2206	W2301	W2302	W2303
S2112	S2201	S2202	S2203	S2204	S2205	S2206	S2301	S2302	S2303
W2304	W2305	W2306	W2307	W2308	W2401	W2402	W2403	W2404	W2405
S2304	S2305	S2306	S2307	S2308	S2401	S2402	S2403	S2404	S2405

<圖 1> 木版本과 瓦版本 「般若波羅蜜多心經」의 全文 字印 比較(7)

W2406	W2407	W2408	W2409	W2410	W2411	W2501	W2502	W2503	
S2406	S2407	S2408	S2409	S2410	S2411	S2501	S2502	S2503	

이상의 字印을 통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 木版本 「般若波羅蜜多心經」의 印出狀態가 瓦版本 「般若波羅蜜多心經」의 印出狀態에 비하여 훨씬 良好함을 알 수 있다. 木版本과 瓦版本의 原文의 行字數는 出入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字位가 變更된 것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無’와 ‘无’ 등의 字體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는 「般若波羅蜜多心經」 瓦版을 製作할 때에 사용된 底本이나 版下本이 木版本 「般若波羅蜜多心經」에 準據하였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般若波羅蜜多心經」 瓦版은 高麗 高宗 25(1238, 戊戌)에 제작된 「般若波羅蜜多心經」 木版보다도 後代에 製作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木版本과 瓦版本의 「般若波羅蜜多心經」에 사용된 字種과 字數를 정리하여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3> 「般若波羅蜜多心經」의 用字와 字種 및 字數

回數	用字	合計		備考
		字種	字數	
1回	訶·減·監·皆·見·竟·高·恐·觀·究·垢·國·縛·能·唐·道·都·度·倒·麗·離·藐·夢·戊·味·槃·復·奉·佛·鼻·師·莎·上·相·生·舌·聲·世·歲·所·戊·時·身·神·實·深·阿·厄·如·譯·涅·五·蘊·曰·羽·遠·有·以·耳·自·契·在·顛·除·造·彫·照·中·增·知·智·眞·集·淨·觸·勅·垂·怖·香·虛·玄	81	81	

回數	用字	合計		備考
		字種	字數	
2回	經·界·罽·乃·等·老·利·減·死·舍·薩·說·受·僧·眼·導·依·意·異·一·子·藏·切·諸·至·盡	26	52	
3回	苦·大·得·明·法·想·識·心·提·卽·行	11	33	
4回	揭·菩·三·亦·帝	5	20	
6回	色·呪	2	12	
7回	故·空·蜜·若·波	5	35	
8回	多	1	8	
9回	无·般·不·是	4	36	
10回	羅	1	10	
12回	無	1	12	
合計	137	137	299	

單回로 사용된 글자는 ‘訶’·‘減’·‘監’·‘皆’·‘見’·‘竟’·‘高’·‘恐’·‘觀’·‘究’·‘垢’·‘國’·‘耨’·‘能’·‘唐’·‘道’·‘都’·‘度’·‘倒’·‘麗’·‘離’·‘藐’·‘夢’·‘戍’·‘味’·‘槃’·‘復’·‘奉’·‘佛’·‘鼻’·‘師’·‘莎’·‘上’·‘相’·‘生’·‘舌’·‘聲’·‘世’·‘歲’·‘所’·‘戍’·‘時’·‘身’·‘神’·‘實’·‘深’·‘阿’·‘厄’·‘如’·‘譯’·‘涅’·‘五’·‘蘊’·‘日’·‘羽’·‘遠’·‘有’·‘以’·‘耳’·‘自’·‘熒’·‘在’·‘顛’·‘除’·‘造’·‘彫’·‘照’·‘中’·‘增’·‘知’·‘智’·‘眞’·‘集’·‘淨’·‘觸’·‘勅’·‘埵’·‘怖’·‘香’·‘虛’·‘玄’ 등 81種 81字이다.

2回로 사용된 글자는 ‘經’·‘界’·‘罽’·‘乃’·‘等’·‘老’·‘利’·‘減’·‘死’·‘舍’·‘薩’·‘說’·‘受’·‘僧’·‘眼’·‘導’·‘依’·‘意’·‘異’·‘一’·‘子’·‘藏’·‘切’·‘諸’·‘至’·‘盡’ 등 26種 52字이고 3回로 사용된 글자는 ‘苦’·‘大’·‘得’·‘明’·‘法’·‘想’·‘識’·‘心’·‘提’·‘卽’·‘行’ 등 11種 33字이며, 4回로 사용된 글자는 ‘揭’·‘菩’·‘三’·‘亦’·‘帝’ 등 5種 20字이다.

6回로 사용된 글자는 ‘色’·‘呪’ 등 2種 12字이고 7回로 사용된 글자는 ‘故’·‘空’·‘蜜’·‘若’·‘波’ 등 5種 35字이며, 8回로 사용된 글자는 ‘多’의 1種 8字이다. 9回로 사용된 글자는 ‘无’·‘般’·‘不’·‘是’ 등 4種 36字이고 10回로 사용된 글자는 ‘羅’의 1種 1字이며, 12回로 사용된 글자는 ‘無’의 1種 12字이다.

『般若波羅蜜多心經』에서 單字로 사용된 81種 81字를 제외하면 56種 218字는

2회 이상 重複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字體에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瓦版本 「般若波羅蜜多心經」과 木版本 「般若波羅蜜多心經」에서 2회 이상 사용된 重複字의 字印을 比較하면 瓦版本과 木版本의 特徵이 더욱 자세히 나타나고 있다.

<圖 2> 瓦版本과 木版本 「般若波羅蜜多心經」의 重複 字印 比較(1)⁴⁸⁾

S0108	S2308	S1002	S1008	S1314	S1403	S1003	S1103	S1808	S1809
W0108	W2308	W1002	W1008	W1314	W1403	W1003	W1103	W1808	W1809
S1106	S1110	S0413	S0612	S0708	S1202	S1107	S1111	S0412	S0611
W1106	W1110	W0413	W0612	W0708	W1202	W1107	W1111	W0412	W0611
S0305	S1302	S1907	S2002	S0603	S0810	S2111	S2204	S0901	S1001
W0305	W1302	W1907	W2002	W0603	W0810	W2111	W2204	W0901	W1001
S1401	S1404	S1304	S1510	S0906	S1006	S0503	S0507	S0408	S1813
W1401	W1404	W1304	W1510	W0906	W1006	W0503	W0507	W0408	W1813

48) ‘S’는 瓦版本을, ‘W’는 木版本을, 數字는 行次와 字位를 표시한 것이다.

<圖 2> 瓦版本과 木版本 「般若波羅蜜多心經」의 重複 字印 比較(2)

S0414	S0613	S0209	S2408	S0409	S1814	S0701	S1507	S1004	S1104
W0414	W0613	W0209	W2408	W0409	W1814	W0701	W1507	W1004	W1104
S1102	S1112	S0410	S1114	S1901	S1709	S1713	S2407	S1208	S1212
W1102	W1112	W0410	W1114	W1901	W1709	W1713	W2407	W1208	W1212
S1604	S1011	S1101	S1714	S0210	S0702	S0913	S0604	S0811	S1501
W1604	W1011	W1101	W1714	W0210	W0702	W0913	W0604	W0811	W1501
S0606	S0813	S1007	S0107	S1312	S2307	S1301	S1613	S2203	S0510
W0606	W0813	W1007	W0107	W1312	W2307	W1301	W1613	W2203	W0510
S0514	S2001	S0306	S0605	S0812	S2101	S2103	S2107	S2112	S0304
W0514	W2001	W0306	W0605	W0812	W2101	W2103	W2107	W2112	W0304

<圖 2> 瓦版本과 木版本 「般若波羅蜜多心經」의 重複 字印 比較(3)

S1214	S1612	S2202	S0208	S1506	S1609	S1611	S0607	S1012	S1108
W1214	W1612	W2202	W0208	W1506	W1609	W1611	W0607	W1012	W1108
S1206	S2102	S2104	S2108	S2201	S0501	S0508	S0509	S0602	S0808
W1206	W2102	W2104	W2108	W2201	W0501	W0508	W0509	W0602	W0808
S0908	S1711	S1801	S1805	S1810	S1914	S2003	S0804	S1213	S1311
W0908	W1711	W1801	W1805	W1810	W1914	W2003	W0804	W1213	W1311
S1405	S1603	S1614	S1906	S0406	S0504	S0505	S0512	S0513	S0703
W1405	W1603	W1614	W1906	W0406	W0504	W0505	W0512	W0513	W0703
S0805	S0105	S0312	S1309	S1601	S1706	S1912	S2305	S0102	S0309
W0805	W0105	W0312	W1309	W1601	W1706	W1912	W2305	W0102	W0309

<圖 2> 瓦版本과 木版本 「般若波羅蜜多心經」의 重複 字印 比較(4)

S1306	S1512	S1703	S1909	S2302	S0103	S0310	S1307	S1513	S1704
W1306	W1512	W1703	W1909	W2302	W0103	W0310	W1307	W1513	W1704
S1910	S2303	S0106	S0313	S1310	S1602	S1607	S1707	S1913	S2306
W1910	W2303	W0106	W0313	W1310	W1602	W1607	W1707	W1913	W2306
S0809	S0907	S0914	S1009	S1013	S1105	S1207	S1402	S1807	S0101
W0809	W0907	W0914	W1009	W1013	W1105	W1207	W1402	W1807	W0101
S0308	S1305	S1511	S1702	S1908	S2105	S2109	S2301	S0502	S0506
W0308	W1305	W1511	W1702	W1908	W2105	W2109	W2301	W0502	W0506
S0705	S0707	S0709	S0711	S0713	S0801	S1904	S0511	S0601	S0610
W0705	W0707	W0709	W0711	W0713	W0801	W1904	W0511	W0601	W0610

<圖 2> 瓦版本과 木版本 「般若波羅蜜多心經」의 重複 字印 比較(5)

S0614	S0803	S1708	S1712	S1802	S1806	S0104	S0311	S1308	S1514
W0614	W0803	W1708	W1712	W1802	W1806	W0104	W0311	W1308	W1514
S1608	S1705	S1911	S2106	S2110	S2304	S0807	S0814	S1005	S1010
W1608	W1705	W1911	W2106	W2110	W2304	W0807	W0814	W1005	W1010
S1014	S1109	S1113	S1204	S1210	S1313	S1406	S1803		
W1014	W1109	W1113	W1204	W1210	W1313	W1406	W1803		

瓦版本 「般若波羅蜜多心經」과 木版本 「般若波羅蜜多心經」에서 2회 이상 사용된 字印을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木版本의 印出狀態가 瓦版本에 비하여 훨씬 良好함을 알 수 있다.

字劃의 새김에 있어서 瓦版本은 缺劃이 있거나 粗雜한데 비하여 木版本은 缺劃도 없고 훨씬 整齊된 技術이라는 점에서 瓦版本에 비하여 木版本이 훨씬 高度의 版刻技術을 나타내고 있으며, 字印의 鮮明度에 있어서도 木版本은 鮮明도가 높는데 비하여 瓦版本은 鮮明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版의 完成度에 있어서도 瓦版의 完成度보다 木版의 完成度가 훨씬 優良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木版과 瓦版의 상호관계는 時期的으로 後代에

製作된 版이 先代에 제작된 版을 踏襲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般若波羅蜜多心經』 瓦版의 전반적인 版式은 高麗大藏經 속에 포함된 『般若波羅蜜多心經』 木版의 版式을 踏襲한 것으로 推定된다.

5.3 瓦版의 價値

『般若波羅蜜多心經』 瓦版의 價値는 瓦版의 製作時期가 언제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金鏞秀⁴⁹⁾ 선생도 <高麗 高宗時 最初金屬活字本 『般若心經』>⁵⁰⁾이라 주장할 만큼, 본 『般若波羅蜜多心經』 瓦版의 製作者나 製作時期를 짐작할 만한 根據記錄이 전혀 없는 問題의 冊版이기 때문이다.

본 『般若波羅蜜多心經』 瓦版의 製作時期를 糾明하기 위해서는 여러 項目에 걸친 科學的 分析이 실시되어야 비로소 可能할 것이나, 현재 筆者에게는 이러한 科學的 分析을 실시할만한 輿件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以上에서 『般若波羅蜜多心經』 木版 및 瓦版과 관련하여 論及된 項目들을 정리하여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4> 『般若波羅蜜多心經』 木版과 瓦版의 性格 比較

號	項目	木版(本)	瓦版(本)	備考
01	經名	般若波羅蜜多心經	般若波羅蜜多心經	
02	譯者	唐三藏法師玄奘譯	唐三藏法師玄奘譯	
03	函次	羽	羽	
04	版材·版本	木版(本)	瓦版(本)	
05	印出·製作地	[高麗國]·[左同]	[奉化]·[不明]	
06	印出·製作處(者)	[大藏都監]·[左同]	[金泰錫]·[不明]	
07	印出·製作年	[高宗 25(1238·戊戌)]·[左同]	[2010後刷]·[不明]	
08	版數·枚數	1版(張)	1版(張)	
09	邊欄	上下單邊	四周單邊	

49) 金鏞秀(1938-): 1963년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을 卒業하고 大學 教授를 거쳐 <韓國古書研究會>의 會長과 名譽會長 및 顧問을 역임한 人物이다.

50) 金鏞秀 編, 『古圖書總類集』 (서울: 韓國原圖研究所, 1994), [1-2].

「般若波羅蜜多心經」의 瓦版에 관한 研究

10	全郭크기	22.6 × 50.0cm	23.0 × 50.0cm
11	界線	無界	無界
12	行字數	25行14字	25行14字
13	總字數	299字(經文 260字)	299字(經文 260字)
14	用字(總計)	137種 299字	137種 299字
15	版心	無版心	無版心
16	魚尾	無魚尾	無魚尾
17	版의 크기	35.8 × 57.8 × [未詳]cm	23.0 × 66.0 × 2.7-2.8cm
18	版의 重量	[未詳]	7,675g
19	所藏處(者)	[海印寺]	金泰錫
20	發生上限(中國)	[唐朝(618-907)]	[康熙年間(1662-1722)]
21	使用下限(中國)	[近代]	[近代(1950年代)]
22	發生上限(韓國)	[新羅 景德王朝(742-764)]	[肅宗 39(1713) 未施行]
23	使用下限(韓國)	[近代]	[未詳]
24	發生上限(日本)	[稱徳朝(765-770)]	[江戸時代(1603-1868)]
25	使用下限(日本)	[近代]	[明治年間(1867-1912)]
26	版刻技術	[良好]	[不良]
27	版刻字體	[良好]	[不良]
28	印出狀態	[良好]	[不良]
29	字位	[整然]	[不整然]
30	底本	[版下本製作]	[木版本覆刻]
31	製作의 先後	[先]	[後]
32	時代鑑定	[高麗時代(高宗)]	[高麗時代(高宗)]
33	版本鑑定	[木版本]	[金屬活字本]

「般若波羅蜜多心經」木版과 瓦版의 성격을 비교하였을 때, 「般若波羅蜜多心經」瓦版의 성격을 糾明하는데 가장 問題點으로 대두되는 것은 瓦版의 製作地·製作處(者)·製作時期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는 「般若波羅蜜多心經」瓦版에 대한 科學的인 分析없이는 쉽게 斷言할 수 있을 問題가 아니다.

製作地는 「般若波羅蜜多心經」瓦版의 材質土에 관한 科學的인 分析이 없이는 論及할 수 있는 問題가 아니며, 製作處(者)는 「般若波羅蜜多心經」木版이 高麗의 大藏都監에서 專門的인 匠人에 의하여 版刻되고 製作되었던 반면 「般若波羅蜜多心經」瓦版은 專門的인 匠人에 의하여 版刻되고 製作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後代에 奇事에 關心이 많았던 製瓦工이나 好事家에 의하여 版刻되고 製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製作時期는 『般若波羅蜜多心經』木版이 高麗 高宗 25년(1238, 戊戌) 무렵에製作되었던 반면, 『般若波羅蜜多心經』瓦版은 中國과 日本의 瓦版印刷術의 發生時期와 韓國의 崔德中과 湛軒 洪大容 등이 남긴 記錄의 情況으로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狀況이다.

金鏞秀先生이 瓦版本 『般若波羅蜜多心經』을 “高麗 高宗時 最初金屬活字本 『般若心經』”으로 鑑定한 것은 『般若波羅蜜多心經』瓦版의 實物을 目見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印本으로만 鑑定한 데에서 야기된 問題로 보인다. ‘高麗 高宗時’는 瓦版에서 木版本의 刊記를 그대로 踏襲한 것을 瓦版의 製作時期로 誤認한 것이며, ‘最初金屬活字本’으로 鑑定한 것은 瓦版本의 印出狀態가 木版本의 印出狀態와는 사뭇 다른 神韻으로 認識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崔德中이 肅宗 39년(1713) 正月에 北京에서 瓦版本을 目見하고 記錄化한 것은 물론 湛軒 洪大容이 北京에서 中國인 孫有義와 鄧師閔에게 “傳聞에 ‘土版法’이 있어서 費用도 적게 들고 使用도 편리하다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요?”라고 질문한 점이든가, ‘味經齋’主人인 周氏에게 “中國의 書籍은 대체로 土版을 사용하여 費用은 적게 들지만 功力이 갑절이나 든다는데 어떻습니까?”라고 質問한 점은 당시 韓國에서는 實行되지 않았던 新技術의 瓦版法(土版法)에 關心을 表明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湛軒이 “中國에도 金屬活字[鑄字]나 鐵版이 있습니까?”고 묻자 ‘味經齋’主人 周氏가 “모두 木版을 사용하고 鐵版이나 金屬活字[鑄字]에 관해서는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라 대답한 내용을 記錄化하고 있는 점을 통해서 파악할 때, 英祖 42년(1766) 무렵에 韓國에서는 이미 木版·木活字·金屬活字 등의 다양한 最高度의 印刷術이 일반적으로 常用되고 있던 터라 이들 印刷術보다 조잡한 형태의 瓦版印刷術을 굳이 國內에 普及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暗示하는 것이기도 하다.

『般若波羅蜜多心經』瓦版은 經의 原文이나 字體 등으로 볼 때 故意的인 僞作性이 內在되어 있지는 않은 듯하나, 오늘날까지 韓國에서 그럴듯한 瓦版本 또는 土版本이 出現되지 않고 있는 점은 韓國에서는 瓦版印刷術이나 土版印刷

術이 전혀 實用되지 않았던 때문이 아닌가 한다.

以上の 여러 情況으로 判斷한다면 「般若波羅蜜多心經」 瓦版은 日帝強占期(1910-1945)에 日人에 의하여 製作되었거나 혹은 日本이나 中國에서 製作되어 國內로 流入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般若波羅蜜多心經」 瓦版은 學術的·文化財的 側面에서 그 價値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評價된다.

6. 結 論

以上에서 印刷術의 發展過程과 「般若波羅蜜多心經」의 漢譯·構成 및 瓦版의 形態와 特徵 등을 중심으로 「般若波羅蜜多心經」 瓦版에 관하여 考察한 바, 이를 要約하여 結論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1) 印刷術은 書寫材料의 發展과 密接한 關係에서 發明되었으며, 初期의 印刷術은 版印刷術이 活字印刷術보다 先行되었으나 各國마다 劃一的으로 各種의 版印刷術이 活字印刷術보다 先行하여 發展한 것만도 결코 아니었다.

(2) 瓦版은 瓦土·粘土·瓷土·膠泥 등의 各種 土壤으로 版型을 만들어 그 위에 文字나 그림 등을 反對로 彫刻하여 기와나 벽돌처럼 구워낸 印出用 冊版을 의미하는 것이다.

(3) 中國의 瓦版印刷術은 清朝 康熙年間(1662-1722)에 시작되어 清朝末期의 盛行期를 거쳐 近代에까지 사용되었으며, 日本에서는 江戸時代(1603-1868)에 시작되어 江戸末期의 盛行期를 거쳐 明治年間(1867-1912) 初期까지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韓國의 瓦版印刷術은 各種의 記錄에서 그 發生의 上限과 使用의 下限을 確認할 만한 根據資料가 매우 不足하며, 혹은 韓國에서는 瓦版印刷術의 普及自體가 아예 必要하지 않았던 事案이 아닌가 한다.

(4) 研究對象의 瓦版은 唐朝의 玄奘(602-664)이 漢譯한 「般若波羅蜜多心經」의 瓦版으로 製作地·製作處(者)·製作年度 등이 不明하다.

(5) 「般若波羅蜜多心經」 瓦版은 高麗 高宗 25(1238)에 제작된 「般若波羅蜜多

心經」木版本과 字體·字位·字種·字數·版刻技術·版刻完成度·印出狀態 등을 대비한 결과 瓦版이 木版보다 後代에 製作된 것으로 推定된다.

(6) 「般若波羅蜜多心經」瓦版의 製作者는 奇事に 關心이 많았던 製瓦工이나 好事家에 의하여 版刻되고 製作되었을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推定된다.

(7) 「般若波羅蜜多心經」瓦版의 製作時期는 정확히 推定할 수 없으나, 韓國에서는 朝鮮時代에 이미 木版·木活字·金屬活字 등의 다양한 最高度の 印刷術이 一般적으로 常用되고 있었던 까닭에 粗雜한 형태의 瓦版印刷術을 굳이 普及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推定되며 혹은 「般若波羅蜜多心經」瓦版은 日帝強占期에 韓國에서 日人에 의하여 製作되었거나 혹은 日本이나 中國에서 製作되어 國內로 流入되었을 可能性도 없지 않은 듯하다.

(8) 「般若波羅蜜多心經」瓦版은 學術的·文化財의 側面에서 그 價値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評價된다.

<참고문헌>

- 金鏞秀 編. 『古圖書總類集』. 서울: 韓國原圖研究所, 1994.
- 朴文烈. 『古印刷出版文化의 理解』. 淸州: 泰一文化社, 2003.
- 中國印刷博物館 編. 『中國古代印刷史圖冊』. 香港: 文物出版社, 1998.
- 崔德中 著. 『燕行錄日記』. 影印本.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2-1984.
- 玄奘 譯. 『般若波羅蜜多心經』. 木版本. [高麗國]: [大藏都監], [高宗 25(1238, 戊戌) 後刷]. 月精寺所藏本.
- 玄奘 譯. 『般若波羅蜜多心經』. 瓦版. [製作地不明]: [製作處(者)不明], [製作年不明]. 金泰錫所藏品.
- 玄奘 譯. 『般若波羅蜜多心經』. 瓦版本. [奉化]: [金泰錫], [2010 後刷]. 金泰錫所藏本.
- 洪大容 著. 『湛軒書』.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69. 外集. 卷1. 杭傳尺牘. ‘與

鄧汝軒書'條. '與孫蓉洲書'條.

洪大容 著. 『湛軒書』.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69. 外集. 卷7. 燕記. 蔣周問答.

高麗大藏經 지식베이스: <<http://kb.sutra.re.kr/ritk/index.do/>>.

高麗大藏經解題: <<http://kb.sutra.re.kr/ritk/search/HaejeView.do/>>.

네이버用語辭典: <<http://terms.naver.com/>>.

위키百科事典: <<http://ja.wikipedia.org/wiki/>>.

中國網庫: <<http://www.99114.com/Article/>>.

